

일본 섬유 기계 학회 제 15회 춘계 세미나 테마

지속 가능한 사회 속의 섬유 산업 - 안전·안심과 환경

일본 섬유 기계 학회(日本 纖維 機械 學會)는 오사카에서 제 15회 춘계 세미나(春季 Seminar)를 2일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테마(獨 Thema : theme)는 ‘지속 가능한 사회 속의 섬유 산업 - 안전(安全)·안심(安心)과 환경’이었다. 특별 강연은 2건이었고, 패널 토론(panel discussion) 외에 두 회장(會場)에서 11명의 보고가 있었다.

개최에 앞서, 후쿠이(福井) 대학 교수인 섬유 기계 학회 회장으로부터 “섬유 업계는 경제 악화의 영향을 받아 생산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상품 만들기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의 프로그램에서, 내일의 비약으로 이어지는 힌트를 얻어주기 바란다.”는 인사말이 있었다.

첫날은 특별 강연으로 교토 여자 대학 교수의 ‘CO₂ 배출량이 보이는 화전략(化戰略) - 카본·풋프린트 제도(carbon foot print 制度)의 동향’을 보고하였다. 보고한 교수는 일본의 환경 정책의 동향과 세계의 조류를 근거로 하면서, 카본 풋 프린트 제도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또한 “환경 비즈니스는 2015년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때까지 이륙(離陸)하지 않으면 장래의 성공을 바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하나의 특별 강연은 오사카 상업 대학의 리에종 센터장(liaison center 長 : 連格 事務所長)의 ‘오사카 동부의 다양한 산업 형성과 활기있는 중소기업’이었다. 이 강연 후에, 야마모토 광학(山本 光學), 클러스터 테크놀로지(Cluster technology), 마쓰오 날염(松尾 捺染)과 가쓰론의 각 대표 4명을 패널리스트(panelist : 共同 討論者)가 ‘활기있는 동부 오사카의 신상품 개발 기업’에 대하여 패널 토론(panel discussion)을 하였다. 토의에서는 활기의 원천으로 ‘다품종 소로트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고객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 힘이 됨, 니치(niche)일지라도 세계의 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불황 대응책으로서는 ‘지적 재산을 다시 검토해 봄으로써 새로운 테마가 떠오른다.’ ‘사원에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신규 장사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지적이 있었

다.

둘째 날에는 A, B 두 회장에서 보고가 있었다. A회장에서는 안심(安心)·안전(安全) 상품 개발을 테마로 ‘섬유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관한 안전 대책’을 “국립 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에서 ‘구주에서의 섬유 제품의 안전성-OEKO TEX와 REACH’에 대하여는 일본 산업 피부 위생 협회에서, ‘3차원 배양 피부 모델(3次元 培養 皮膚 model)의 동물 실험 대체(動物 實驗 代替)한 이용과 전개’에 대하여는 도요보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부 테크니컬 매니저(東洋紡 life science 사업부 technical manager)가, ‘SEK 및 소취 가공 마크(消臭 加工 mark)의 인증과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는 섬유 평가 기술 협의회 제품 인정 부장(纖維 評價 技術 協議會 製品 認定 部長)이 보고하였다.

B회장에서는 환경을 배려한 신상품 만들기를 테마로 ‘면에서의 바이오 에탄올(bio-ethanol) 생산 기술’에 대하여는 오사카 대학 첨단 과학 이노베이션 센터 VBL 부문 특임 연구원(大阪 大學 尖端 科學 innovation center VBL 部門 特任 研究員)이,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의 현상’에 대하여는 일본 오가닉 코튼 협회(日本 organic cotton 協會)에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兩立)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는 고베 야마테 대학(神戸 山手 大學)에서, ‘환경 대응 인공 피혁(環境 對應 人工 皮革) 티레니나’에 대하여는 구라레 오카야마 사업소(岡山 事業所) 구라리노 개발부에서, ‘순환형 리사이클 시스템 에코 서클(循環型 recycle system eco circle)’에 대하여는 데이진 파이버 마케팅부(帝人 fiber marketing 部)에서, ‘용해 방사(溶解紡絲)가 가능한 셀룰로스계 섬유(cellulose系 纖維) 포렛세’는 도레이 텍스타일 개발 센터(Toray textile 開發 center) 가공 기술 개발 실장(加工 技術 開發 室長)이 보고하였다.

또한 첫날 행사가 끝난 후에는 간친회(懇親會)가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는 서로 정보 교환과 친목을 깊이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